

과연 1946년이 서울대학교의 ‘개교 원년’ 인가?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명예교수 한 인 규

서울대학교는 언제 개교되었나?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서울대인은 물론 1946년 10월 15일이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서울대학교가 지난 2008년 10월 15일에 개교 62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하였기 때문이다. 몇 해 전에 서울대학교가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서울대학교 내 어떤 단과대학에서는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의 역사가 60년인데 어찌 소속 단과 대학의 역사가 100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그 행사를 대학본부가 모르게끔(?) 적당히 치르고 말았다는 웃지 못 할 얘기를 들었다. 벌써 10여 년 전에 캠퍼스 내에는 “근대법학 100주년 기념관”이라는 건물이 들어섰다. 무언가 좀 이상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서울대학교의 개교기념일은 언제라고 말해야 하는가?

서울대학교는 미군정하에서 1946년 8월에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의 공포로 대학원 외에 9개 단과대학으로 출범하였다. 그러니까 2006년 10월 15일에는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였고 2008년 10월 15일에는 개교 62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외국대학의 역사를 보면 그 시발점은 자그마한 교육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교 시 현재의 이름을 쓰지 않았던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여러 개의 작은 교육기관이 현재의 대학으로 합쳐진 경우도 있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미국의 하버드대학은 1636년을 개교 원년이라고 하는데 개교 당시에 그 대학은 조그마한 목사양성소였다고 한다. 일본의 히토쓰바시대학은 1875년에 상법강습소로 시작된 것을 개교 원년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세계 우수대학의 상당수가 특정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소규모의 양성소 또는 전문학교의 개교를 그 대학의 원년으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성균관대학교는 1398년에 설립된 조선왕조의 국립교육기관인 성균관의 계승자라고 자임하며 수년 전에 개교 6백년 기념행사를 거행한 바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과연 서울대학교의 개교원년이 언제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생각하건데 서울대학교의 창설은 실로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국립대학교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역사는 오늘날 알려진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즉 고구려의 소수림왕 2년(372년)에 세워진 국립교육기관인 ‘太學’ 창설로 부터 그 기원을

찾는다면 1636년 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통일 후 신문왕 2년(682년)에 세워진 신라의 '國學' 창건 때부터라고 하더라도 1326년 전의 일인 것이다. 고려의 국자잡은 신라의 국학의 전통을 이어 성종 11년(992년)에 세워졌다고 한다. 이렇듯 국립서울대학교의 연원은 고구려의 태학이나 신라의 국학 이래의 국립대학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서울대학교의 원년을 살펴보자. '국립서울대학교'라는 이름의 기관이 만들어진 것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후인 1946년의 일이다. 그런데 이 이전에도 서울대학교를 구성하는 여러 단과대학이 존재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법과대학의 경우 구한말 1895년 최초의 근대적 국립법학교육기관이자 법관연수원으로 만들어진 '법관양성소'가 설립되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는 이 기관을 법대의 시원으로 보고 있고, 이 기관의 졸업생을 동창회원으로 등록하고 있다. 법관양성소는 한·일 강제합방 이후 '경성전수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등으로 개칭되었고 이는 해방 후 서울대학교로 흡수되었다.

농과대학과 공과대학의 전신은 1904년 서울에 세워진 대한제국 '농상공학교'이며 1906년 9월 10일에 농상공학교의 농과가 농림학교로 분리 독립하였다고 한다. 1907년 1월에 수원으로 이전하여 수원에 자리한 권업모범장과 함께 우리나라 농학교육 및 농업연구의 중심으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그 후 1918년 3월에는 3년제인 수원농림전문학교로 개칭되었다. 1922년 3월에 수원고등농림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1944년 4월에 수원농림전문학교로 또 다시 대학의 명칭을 개칭하였다. 1946년 8월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수원농림전문학교를 농과대학으로 대학 이름을 바꾸어 서울대학교로 흡수되었다. 그래서 현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는 농상공학교로 첫 수업을 실시한 1906년 9월 10일을 개교 원년으로 삼고 있다.

의과대학은 1885년에 설립된 국립의료원인 '광혜원', 1897년에 개설된 '중동의양성소' 및 1899년 '의학교 관제'에 따라 학부 의학교의 뿌리로 설정한 바 있다. 1907년 통감부에 의해 의학교와 광혜원을 통합하여 대한의원이 신설되고 1910년 대한의원이 통독부 병원으로 바뀌어 교육기능은 부속 의학 강습소로 변경되었다. 1916년 경성의학전문학교가 설립되고 1926년 경성제국대학의 설립에 따라 의학부가 설립되었고 1945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는 경성대학 의학부로 바뀌었다. 1946년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가 통합하여 국립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되었다. 이외에도 1907년 대한의원 간호부 양성소에서 출발한 간호대학, 1895년 한성사범학교에서 출발한 사범대학이 함께 1946년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통합되어 국립서울대학교로 흡수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각 단과대학의 기원은 생각지 않고 서울대학교의 개교일을 1946년으로 보는 것은 아마 1924년 설립된 '경성제국대학' 때문일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존재했던 개별 단과대학의 일부는 이후 경성제국대학으로 흡수되는데, 서울대학교의 시원을 각 단과대학의 시원으로 올리면 그 단과대학을 흡수한 경성제국대학도 서울대학교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는 개별 단과대학 중 최초의 개교일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서울대학교가 경성제국대학교의 후예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는 일제 강점기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1948년 에 수립된 ‘대한민국’의 뿌리는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의 설립년도를 ‘법관양성소’가 설립된 1895년으로 재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일각에서는 오는 2015년에는 서울대학교 개교 1백2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 변화를 가져오려면 당국자는 왜 2006년에 개교 60주년 행사를 치루고 그로부터 10년이 채 못 지난 2015년에 느닷없이 개교 120주년 행사를 치루는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할 줄 믿는다. 어쨌든 우리 서울대학교의 개교원년은 1946년이 아니고 1895년임이 분명한듯하다. 2008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서 ‘국립 서울대학교의 개교원년 재설정 발의 문’을 채택하여 1946년의 개교는 ‘서울대학교’란 이름으로 시작한 국립대학교의 역사로서, 우리 민족의 국립대학역사의 전부가 아님을 널리 알렸다. 끝으로 이 원고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자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보를 비롯한 각종 자료를 활용하였음을 첩언해 두는 바이다.